

성 내지 않겠습니다 (상)

박현이 (대전시 대덕구 법1동)



그림 · 문병성

내가 불교를 만난 건 대학교 4학년 무렵이었습니다. 하고 있는 공부가 주로 사회구조와 갈등,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것이어서 나는 마치 세상의 모든 고민을 '내가 다 해결이라도 해야 하는 듯' 매일 머릿속이 지글거렸습니다. 농촌문제, 노동문제, 여성문제, 환경문제... 내 온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는 화두는 오로지 '문제, 문제, 문제'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즈음 나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게 아닌데도 목뒤가 빠근하고 어깨와 등까지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파스로 온통 도배를 하고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아무리 한의원을 다녀도 낫질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던 중, 한군데에서 전해 준 한의사의 말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갈 병이라고." 참 절망적인 이야기였지요.

뚜렷한 병의 원인과 병명도 모른 채 막연히 '간(肝)'이 좋지 않아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다른 차도 없이 한의원에만 의존할 수 없어 주위의 권유로 단전호흡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독을 위해 갔던 첫 날, 몸의 기 상태를 점검하시던 사범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본인의 몸이 아픈 것 같으나"고 물기에, 나는 "얼마가 장사를 하셔서 간혹 집을 비우시는데, 그럴 때면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아버지 아침상을 차려 드리려고 일어나야 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힘들고 긴장 됐어요. 이후 생활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분은 나를 가만히 보며 하는 얘기가 '기왕에 할 거면 편하게 하면 좋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처럼 쉽고 간명한 답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때의 나로서는 그 말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매사

에 불만이 많고, 열심히 하지만 뭘 해도 문제점 위주로 지적하기 좋아하는 나는, 사실 단 한번도 "기왕에 할 것 기본 좋게 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내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전호흡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통 "우리 사회의 구조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실천 주체로서의 개인"에 몰두해 있던 것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개인"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련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군복무를 하고 있던 한 선배와 부처님의 법에 관한 얘기를 편지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휴가를 나와 만나게 되면 열에 열다섯 불교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맘이

지금도 부처님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자주 떠오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첫 인연이 되었던 단체에는 그리 오래 몸담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비슷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 책 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처럼, 이제는 부처님의 법에 근거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무기가 되어 나 자신을 겨누고, 못살게 굴고, 함께 일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라는 집안 환경과 여러 조건의 영향으로 '바르고 옳은 것'을 좋아하던 나에게 불교는 오히려 병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른 사람들에 분별심으로 가득 결혼하며 세상에 거는 기대 남편에 집중 실망 쌓여 '이혼과 마음 돌리기' 반복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가을, 환경문제를 부처님의 연기법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한 불교사회단체 산하의 환경 NGO를 내 인생의 첫 직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어 불교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대로 자신 내면의 문제, 개인과 개인의 갈등, 사회의 여러 문제, 민족 갈등 등을 풀어나가면 조금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종교와 아주 무관하고, 특히 그 단체의 다른 대중들처럼 불교대학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어서 아주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스편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렇게 잘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잠시, 나는 일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는 것에 점점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짚에서 출가를 했다는 소식을 후에 듣게 된 법우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더군요. "일을 잘 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걸 해야 할 것 같다"구요. 이 말은

그 무렵, 군대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불교를 만난 '신기함과 우월함'을 나눴던 그 선배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에, 사람들에게 거는 최고의 기대와 확신을 '남편'이라는 한 사람에게 총 집중하며 말입니다.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단체로 향하던 분별심이 '남편'이라는 새로운 대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의 법을 등돌림 삼아 인생의 중심을 잡으면서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부부보다도 멋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으리라는 막대한 기대 속에서 말입니다.

아주 많은 부부들이 그러하듯, 나에게도 결혼 3년여 동안은 '이혼과 마음 돌리기'를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보이던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할 무렵, 서로 다른 질과 스승에게 공부한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어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이 아상에서, 법상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 채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히 맞서며 싸웠지요.

농촌이 고향인 나는, 늘 농사일로 바쁜 어른들 밑에서 크느라 아이들이 대부분의 생활을 스스로 챙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남편은 도시에서 전업주부인 엄마로부터 모든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자라, 동등한 가사노동 참여는 고사하고 코 푼 휴지조차도 휴지통이 조금만 멀면 그냥 책상위에 두기 일쑤였습니다.

옷걸이에 옷이 가지런히 걸려있는 날도 없었고, 둘 다 사회활동을 하느라 바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방이라도 닦아주며 협조를 구하면, '청결의 개념이 다르다'며 자기 불일만 보였습니다. 어쩌다 남편 혼자 집에 있고 밖에서 내가 급한 일로 전화를 해도 귀찮거나 자느라 안 받기 일쑤였고, 먼저 나가는 날에 밥과 국을 챙겨 놓았다가 되돌아와 보면, 밥통뚜껑은 열린 채 밥은 다 말라 비틀어 있고, 국 냄비는 냉장고에 두지 않아 음식이 쉬어있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첫 해 겨울 어느 날에는, 보일러가 고장 나서 한 삼일을 냉방에서 지는데도, 낮에 시간을 쓸 수 있던 남편이 A/S를 하지 않아, 내가 밤마다 일어나 임시방편으로 보일러를 손 본다, 급기야는 시아버닝게 부탁을 드려 수리한 적도 있었습니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작곡자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s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계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불 전 합

움직이거나 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범상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소중하고 인연을 위한 정성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산수조청

전통 비법으로 산수에서 스님에게 직접 만드신...

- ◆ 산수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산수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수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어오르지 않는 산수참옥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수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농협 727077-52-056761(현운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수조청원

부처님 정통 수행법 Sati 수행 Workshop

올바른 부처님 수행법의 정립이 요청되는 이즈음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과 전문가(교수·대학원생·불교단체임원 등)를 위한 수행 workshop을 갖습니다.

- ◆ 장 소: 다보산 만나라마(부산)
- ◆ 대 상: 스님 및 전문가
- ◆ 참가비: 10만원, 학생 4만원
- ◆ 준비물: 가사, 일반인 수행복 지급
- ◆ 지도법사: 본교 하빠-라(本願)스님
- ◆ 내용 및 상반기 일정

회차	일시(7시-15시)	내 용
2회	5월 16일-18일	· 마음구조와 마음작용
3회	19일-21일	· Sati수행의 이론과 실기
4회	6월 20일-22일	· 간화선·목조선의 이론과 실기
5회	23일-25일	· 의학, 상담학, 심리학, 뇌과학, Sati수행비교
6회	7월 11일-13일	· 요가와 불교수행 차이점 비교
7회	14일-16일	· 부처님과 프로이트 마음이해비교
8회	8월 16일-19일	· 수행 프로그램개발 (수련회, 템플스테이, 법회등)

※ 접수 회는 5년 이상의 출가수행자 · 8회는 학인스님 대상입니다

문의 및 접수 www.pannarama.net
011-1700-2841, (055)331-2841
Sati School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명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아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역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